

조피볼락 양식의 현 상황

이태규/ 바이엘코리아(주) 경상도 양어 담당

가 두리 양식장을 보면 악재가 연이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것이 매우 불안해 보인다.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에서 가까스로 극복하고 작년 하반기에 가까스로 제자리를 잡는 듯 한숨 돌린 양어장을 비롯이라도 하듯이 올 초부터 조피볼락 해상 가두리 양식장을 중심으로 판매 가격 폭락을 일으키더니, 이젠 한 술 더 떠서 판매가 거의 되지 않는 판매 정체 현상으로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순환 구조 자체를 초토화시키고 있다<그림 1>.

할어 수입에 그 원인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지만, 원인을 다양한 곳에서 찾는 것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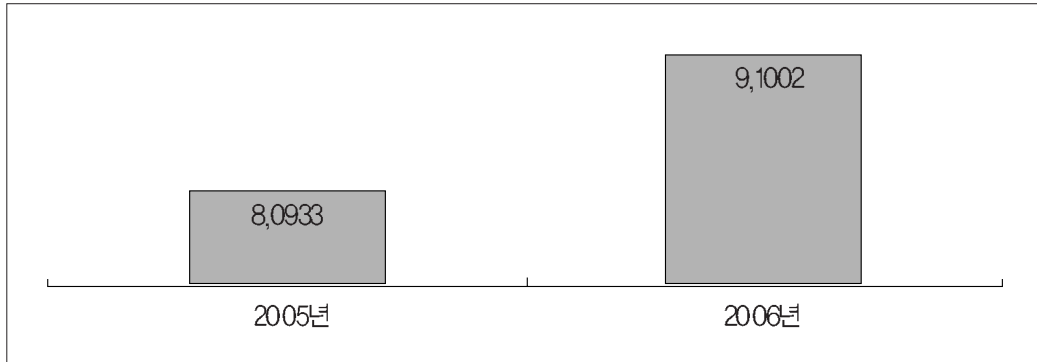
옳은 방법인 것 같다.

첫째로 조피볼락 양식의 생산성 저하이다. 연초에 조사한 2006년 전국 어류 양식어가(총 3,131개소)에서 생산한 양식어류 출하량은 2005년도(8만933톤)에 비해 오히려 12.4% 늘어났지만, 우리의 생산량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둘째로 조피볼락 양식 기술의 발전이 정체되고 있다.

전체 양식어가의 65% 이상이 조피볼락 양식을 하고 있으며 전체 어류 양식 입식량 중 절반 이상이 조피볼락이고 넙치는 22%에 불과하지만, 양식 어류 판매 금액 별로 본다면 넙치가 48.0% 이상을 차지하

〈그림 1〉 어류 양식 총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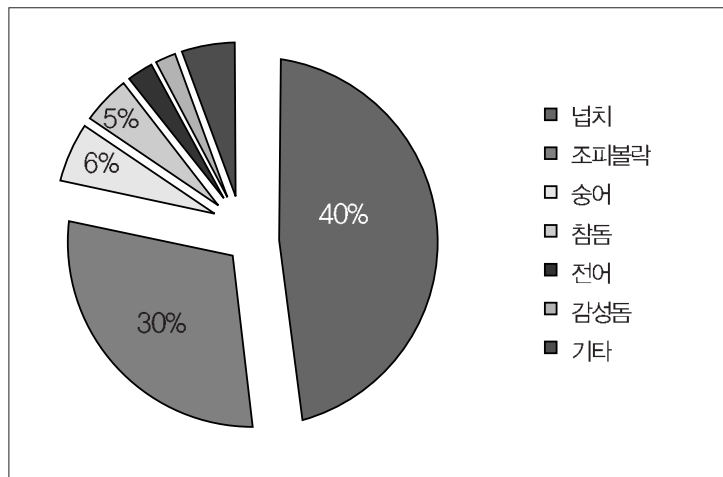
고 있으며 조피볼락이 30.2%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어류 양식 지역으로 구분해 본다면 전체 양식어가 3,131개소 중 해상 가두리식 72%, 육상 수조식 21%, 축제식 6%, 그 외 기타 1%의 분포가 경남 통영(20.9%), 전남 여수(17.5%), 신안(10.6%), 완도(11.3%)에 전체 양식어가 중 60.3%가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고수익이 예상되지만,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사실과 다른 점이 매우 많다. 전남 양식어가의 26%, 경남 양식어가의 6%만이 육상 수조식이며 나머지 절대 다수는 해상가두리 양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조피볼락 양식어가의 99.5%가 해상가두

리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본다면 현재 어려운 지역 상황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다.

이젠 조피볼락 양식이 양식 모범 답안으로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위를 점하던 시절은 지났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 하다.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사실은 어병에 강

〈그림 2〉 어종별 양식 비중(2006년)



〈표 1〉 전체 폐사어의 어종별 비율

넙치	27%
조피볼락	34%
기타	39%

하다는 조피볼락의 폐사율 급등이다.

전체 폐사(사유: 자연폐사, 질병, 자연재해 등) 중 경남, 전남에서 폐사된 어류가 전체 폐사량의 약 60%를 차지한다는 사실과 전체 양식 어류 폐사를 어종별로 구분해 보면 조피볼락의 전체 폐사량의 34%, 넙치가 27%에 이른다. 물론 성장 기간과 자연 재해 등의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폐사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환경이 예전만 못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한다. 그럼 그 차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는 양어장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1. 조피볼락의 비중을 줄여야 하는가?

어류 양식할 만한 어종은 무엇이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과연 누가 해답을 줄 것인가? 작년에 새롭게 양식어종으로 대두된 동갈돛돔의 경우 몇 군데 양어장에서는 횡감으로서의 맛과 성장률에 이끌려 새롭게 시도해 본 곳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결론

은 실패였다. 또한 최근에 유행처럼 번졌던 전어 양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제일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예전에 키우던 방식으로는, 조피볼락의 양식은 이렇다라는 식으로는 이젠 어류 양식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다는 점이다.

2. 대체할 만한 어종은 있는가?

아직까지 이리저리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양식어종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급 어종으로 각광받던 돔류는 이제 송어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양식어류의 생산량의 80%가 조피볼락과 우럭이며, 한동안 2종류가 절대 우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젠 폐사율을 줄이고, 생산비를 줄여 경쟁력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 정답일 수 밖에 없다.

3. 그렇다면 다른 나라는 어떤가?

국가가 나서서 전략 품종을 육성하고 법으로 규제하면서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중

〈표 2〉 세계 각국 양식 생산량(단위 1,000mt)

	1974	1984	1994	2004
중국	960	2,440	12,967	30,615
인도	192	572	1,519	2,472
베트남	76	118	338	1,199
태국	48	112	510	1,173
인도네시아	133	270	602	1,058
방글라데시	71	117	264	915
일본	443	629	781	776
칠레	-	2	118	675
노르웨이	2	25	218	638
미국	167	326	391	607
한국	99	296	342	406
기타	1,067	2,333	2,789	4,947
계	3,258	6,944	20,839	45,481

〈그림 3〉 Aqua Forum



심으로 수출을 목적으로 다양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이젠 대규모 생산을 위해 단순히 자연 조건에 맞춰 생산하기 보다는 면역 증가, 소독, 양어

용 백신 등을 통한 기술 개발로 생산성 향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순히 비교하면 품종도 다른 우리나라 경우 이런 시대 상황과 별개의 환경에 처해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걸음 한걸음 제도와 기술을 정비해 나간다면 예전처럼 양식 호황기를 다시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